“주요 산업 완성도 높이겠다”

유호연 무주부군수, 군립요양병원 건립 현장 등 주요사업 살펴

유호연 무주부군수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무주군 주요 현안사업장과 운영시설 등 16개 현장을 방문해 군정추진 상황을 살폈다. 2022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과 운영중인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과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일에는 △목재문화체험 조성(향로산 자연휴양림 내),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머루와인동굴, △무주군립요양 건립,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현장을 차례로 들러 해당 부서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호연 부군수는 “사업 시기별 절차와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 계획된 일정에 맞게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 업무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3일에는 △삼유천 재해복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과 철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현장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4일에는 △태권마을, △태권어드벤처 운영 시설,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태권브이랜드, △생태모험공원,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특히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무주군이 태권시티라는 명성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 볼 계획이다.

유호연 부군수는 “무주군의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장과 운영시설 점검을 통해 주요 추진 현안사업 등을 정확히 살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비전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무주군은 지난 2일 유호연 부군수 주재로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추진상황 보고회는 분야별 (교통안전,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화재) 담당과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과 유관기관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6개 분야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른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개선대책 수립 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지표별 실행 가능성을 판단해 앞으로의 분야별 안전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분야별 담당 부서장들은 지표를 심도있게 분석해 추진상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유호연 부군수는 “ 교통사고, 안전사고 발생건수 등 실질적 위해지표의 감축은 단편적인 업무추진으로 달성하기 어렵지만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시책 등을 통해 지혜를 모아 유기적으로 안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농축산물 12개 품목 · 가공품 11개품목 등 경쟁력 갖추고 차별화된 27종

진안군은 3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위원장 김명갑, 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돼지고기, 홍삼, 곡류, 수삼(인삼), 진안고원몰 온라인 상품권 등 총 27종을 답례품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마케팅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최적의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4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1만원대에서 3만원대의 농특산물 답례품 선정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는 농촌체험관광, 여행상품권과 같은 답례품을 개발하여 관계 인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정은천 연구위원의 발표를 토대로 진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답례품 선정을 위해 지역의 대표성, 지속적·안정적 공급 가능성 여부, 다양한 기부자의 선호도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진안군은 이번 답례품 선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까지 답례품을 활용한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MZ세대 등을 겨냥한 숙박이용권, 여행상품권, 서비스권, 증서와 같은 답례품 등도 개발·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갑 위원장은 “답례품은 기부금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양파 농가 방문 애로사항 청취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일 정식기(심는 시기)를 맞은 양파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수군 산서면 양파 농가를 찾은 최 군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지원으로 농민들이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겠다”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을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예방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신소득 꽃송이버섯 단목재배 실증 시범사업장에 대해서도 꽃송이 버섯 재배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최훈식 군수는 “꽃송이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아직 소비자에게 낯선 품종인 만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꽃송이버섯이 장수군의 신소득 작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품목 다양화를 위해 신품목 실증재배 및 지역적응성 연구로 농가소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장수소방서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장수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2017년 12월~2021년 2월)에 발생한 화재는 127건으로 5년간 총 화재건수 중 29.1%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75건(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5건(19.7%), 기계적 요인 10건(7.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장수소방서는 겨울철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토대로 최근 대형화재 및 재난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 화재취약자의 대응능력 강화 △관서장 현장행정 강화 △화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대도민 화재안전 홍보활동 등7대 전략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자동개폐장치 100%설치,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 안전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을 점검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에 대한 화재예방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산림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목보일러 가구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집중 추진하며 상반기 산림인접 185가구에 대하여 간이SP 설치하였는데 그에 대한 모티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 가공공급업체 합동 점검

진안군은 2~3일 이틀 동안 관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가공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안군과 교육지원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과, 관내 학교 영양교사 및 학부모 등 6명이 나서, 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부귀면 소재 농협김치공장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중 4개소를 선정해 위생과 식품안전 준수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

먼저, 안전 및 방역과 관련해 △시설안전, △화재예방, △미세먼지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과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서 위생점검으로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 상태 적정성, △식재료 보관·관리 및 지역산 원재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등 제품 표시사항 표기 여부, △각종 인허가·인증 유효기간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산림치유원 지역 연계사업 중간보고회

진안군은 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하 산림치유원)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연계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진숙 농촌경제국장, 박춘선 산림과장, 사업수행기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지역연계사업 과제간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 성과, 보완사항, 사업간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역연계강화사업은 지역 농?임산물 판매 증진 및 주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치유원 조성에 발맞춰 지역 상생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남수 장수군의원, 천천 계북면 관광지 개발 제안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지난 2일 제34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천면 연평리와 계북면 월현리 일원의 특이자원을 연계한 △부연마을 폐광 개발 △연평리 하천 수상레저 활성화 △월현리 ‘백 주교 피난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폐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성공한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천천면 부연마을 일대의 폐광을 관광지로 발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평리 하천은 수심과 물결은 카약과 같은 수상레저를 즐기기에 적합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천주교 7대 교구장이자 명동성당 초대 본당 신부인 백 블랑 요한 교주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약 2년간 숨어 지냈던 계북면 월현리 큰골의 ‘백 주교 피난굴’을 성지순례 코스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장수=고판호 기자